

도 넘은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

광주시, 지난해 폭언·욕설 1366건, 위협·협박 460건 등 1931건 정율성 기념사업 담당 직원 항의전화 시달려...법적 대응 등 추진

광주시가 폭언, 폭행, 위협, 협박,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한다. 특히 특정 업무 공무원을 지목해 괴롭히는 이른바 '좌표적' 악성 민원에 대해선 실질적인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모두 1931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1366건, 위협·협박 460건, 성희롱 82건 등이다.

특히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이른바 '좌표적

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5·18 보상 요구 등과 관련한 민원 전화부터 반려동물 관련한 민원 등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타 지역이긴 하지만, 지난 2월 김포시에서 '좌표적'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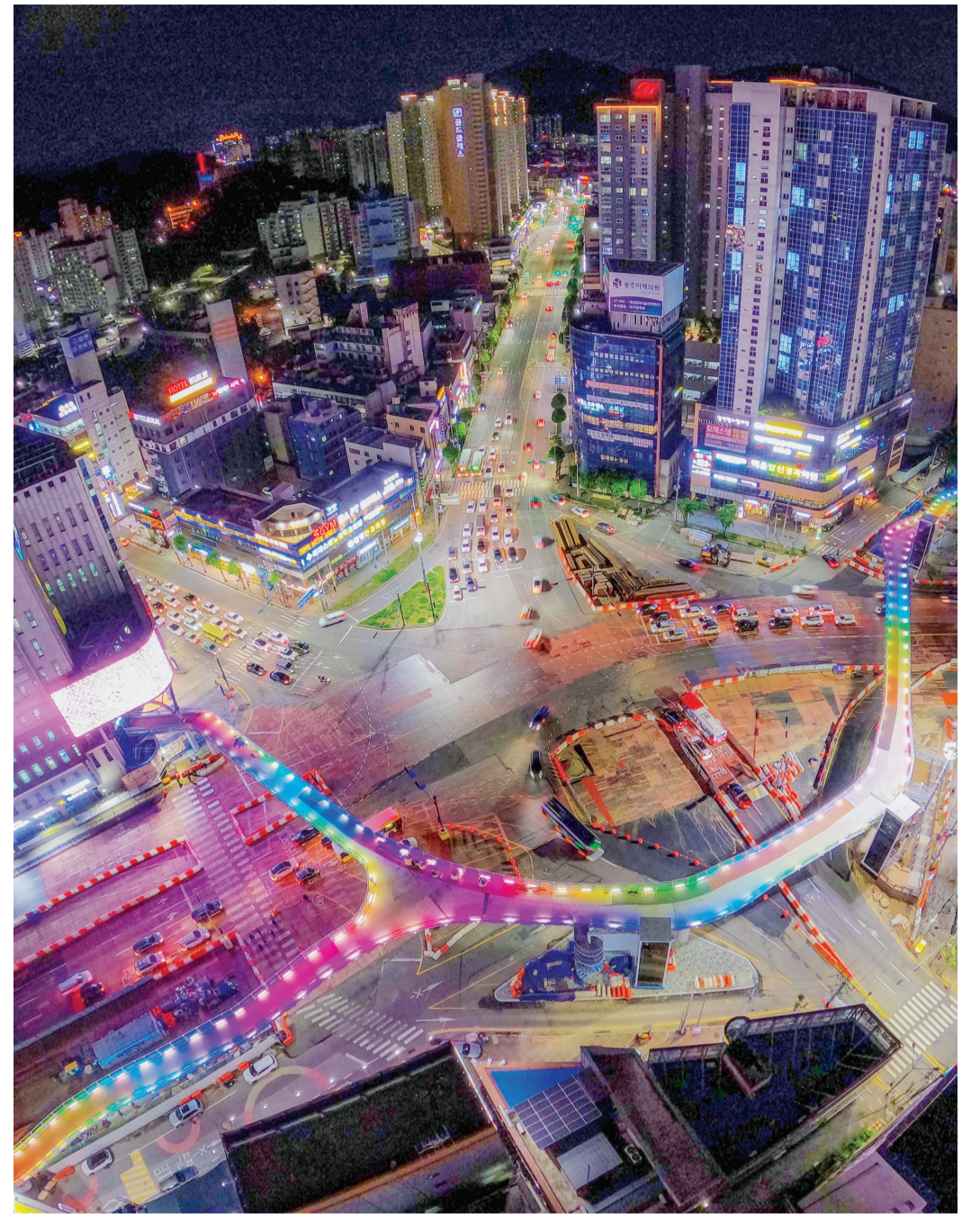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 대와 함께 시청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대응 모의

훈련'도 했다. 악성 민원 발생, 중단 요청, 피해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대피,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을 거쳐 경찰서에 민원인을 인계하는 과정까지 상황별 가정 훈련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일단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보호장비 대여, 법적 대응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율성(기념사업) 때문에 좌표적 기 당한 직원, 5·18과 반려동물 관련 고생한 직원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직원들과 점심을 했다. 이 직원들은 우리들의 아들·딸이고 가족이다. 민원은 좋으나 욕설은 안된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원은 잘 받을 것이며, 악성민원을 당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 밝힌 푸른길 브릿지 공사 막바지에 접어든 광주 남구 백운광장의 '푸른길 브릿지'가 25일 오후 색색의 불을 밝히고 있다. 푸른길 브릿지가 완공되면 광주 동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산책로인 푸른길 공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역의 대표 산책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정량평가 목표 95.12% 달성...정성평가 우수사례 3건 선정 성과도

광주시가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 분야에서 목표의 95.12%를 달성해 세종시(96.4%), 울산시(95.18%)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해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사·도

에서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도다.

이번 평가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지표 82개와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지표 18개 등 총 100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안전·복지, 지방자치, 적극행정 등의 82개 정량지표 중 7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해 95.12%의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지자체 우수시책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분야에서도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달빛동맹 협력강화 및 광주-인접 시·군 갈등해결, 클라우드로 IT(인공지능)는 디지털혁신의 삼각공동체(행정-민간-공공), 청소년이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광주! 등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시정 주요 부문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디지털행정' 가속

광주시, 연간 업무처리 3000시간 단축...AI 적극 활용 업무 재설계

광주시가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하는 등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처리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 등 3건이다. 업무자동화시스템(Robotic Process Automation)은 사람이 하던 정형·반복적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AI)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화 과제로, 그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교육이수 실적을 직접 등록했지만 이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으로 처리토록 해 개별 등록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는 매월 부서마다 30분 이상 할애하던 특근매식비 금액 계산을 자동

화해 업무시간 절감과 함께 수기 계산에 따른 실수를 차단했다.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는 1년에 2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통지하던 상시학습 실적을 자동화해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통해 수작업에 따른 실수를 막고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 처리로 연간 3000시간 이상의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행정업무 재설계로 자동화 처리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여성일자리 협력망 강화 여성새일센터 등 15개 기관 협약

광주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지역 일자리 협력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 지원을 위한 '광주여성잡(Job) 페스타'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광주지역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여성새일하기센터(5개), 여성인력개발센터(2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일산방직(주) 광주2공장, 홀리데이인호텔, 세계로병원 등 60개 지역기업과 10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광주시, 광주지역 5개 여성새일하기센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등 1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광주 북구 등 2개 여성새일하기센터는 올해 여성가족부의 '미래유망직종 및 신기술 응용분야 직업훈련과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모색

덴마크 선진 시설 시찰 탄소·악취 저감 현황 살펴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가스 시설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찾아 도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덴마크 클립레프에 위치한 지속가능한 바이오 대책(Sustainable Bio Solutions)의 선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했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자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화를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찾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바이오가스 시설과 에너지 생산량, 탄소 저감 효과, 악취 저감시설

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은 단순히 가스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가스의 전기 전환, 인근 주민에게 발전폐열 공급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 방문을 마친 김영록 지사는 "가축분뇨를 퇴·액비 자원화 위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생산토록 하는 등 전남지역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